

C-1. 고정성 국소의치의 지대치로 사용된 자가치아이식치의 임상증례

강경희*, 박진우, 이재목, 서조영

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

자가치아이식술이란 본인의 치아를 동일 구강내의 다른 부위로 이식하는 술식으로, 1950년 Miller등이 제 3대구치의 자가치아이식술에 대해 보고한 이래, 1963년 Nordenram과 1964년 Walker와 Schaetter 등에 의해 많은 임상 증례가 보고되었고, 1970년대 이후 Andreasen등에 의해 치아이식술의 창상치유 및 임상응용에 대한 보고들이 구체화되었다. 일반적으로 자가치아이식술은 수복이 불가능한 광범위한 우식, 치아파절, 심한 치주염으로 인해 보존이 불가능한 대구치를 발치하고 난 다음, 기능하고 있지 않은 건전한 제 3대구치를 발치와에 이식하는 경우가 많다. 자가치아이식은 임플란트와 비교시 치근막에 의한 저작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, 인공치아대체물이 필요하지 않아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. 그러나 단점으로는 임플란트보다 더 큰 직경을 가지기 때문에 비기능 치아가 존재하더라도 적응 증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고, 환자의 연령과 수용부의 상태에 따라 치근흡수, 부착상실 등에 의한 장기적인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.

이전에 보고된 증례에서는 한 개 치아상실 후 발치와에 자가치아이식술을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, 본 증례에서는 광범위한 치아우식 및 심한 치주염으로 2개 이상 치아를 상실한 후, 기능하고 있지 않은 치근이 완성된 제 3대구치를 이식하여 고정성 국소의치의 지대치로 기능하게 한 결과 양호한 예후를 보이므로 보고하는 바이다.